

## [ 오피니언 ]

## 기자하 칼럼



샘은 우물과 다르다. 우물이 판 것이라면 샘은 솟는 것이다. 판에서는 안 솟는가 물을 수 있다. 안 솟는다. 우물을 그만 놓았던가? 우물을 물은 물이지만 샘을 과는 질이 다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물을 먹고 병에 걸리는 이는 많으나 샘을 먹고 병 걸린 이는 드물다. 우물을 수백이 보통 지하 10m정도라면 고작이지만, 샘들은 적어도 100m이하라야 한다. 100m라면 풍수지리에서 보통 층위변경(層位變更)이라 하여 그 샘에 제사자닐 것을 청권할 정도다. 안 그러면 동티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층위란 귀신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함부로 손 넣는 지명이라는 것이나 솟아날 그 나름의 신이한 깊이 있어서 샘풀이 솟는다는 것을 풍수나 박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것 예전에 동네상식인데 요즘은 아는 사람 거의 없다. 하기야 수돗물이나, 병에 든 생수나 하는 판인데 무슨 그런 구닥다리 얘기나 할 것이다.

얼마 전 아침 신문의 1면에 두 가지 기사가 떴다. 위는 멕시코의 돼지독감기사

## 샘물의 깊이

서 그렇까? 간단하다. 멕시코 돼지독감은 물의 정화능력 여부에 연결돼있고, 월가 전문가들의 한국 동경은 빙에 둘러 샘물의 새로운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

무슨 뜻일까? 돼지독감의 문제는 전염 문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오염된 물의 병원체와 경향이나 당연하고 월가 얘기하는 창조성의 영역이다. 마치 100m 지하의 귀신의 층위라고 제사자닐 정도의 숨은 무언가 한국의 새로운 창조적 폭발력이 확실히 느껴질 만큼 온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다는 뜻이다.

왜? 영화도 그렇지만 텔레비전은 더욱 이, 텔런트나 모델, 아나운서 등의 '포토제니', 즉 드록한 타고난 매력이 가진 깊이와 신선함에 따라 특별 쏘는 메시지의 슬기의 힘이 결합되는 데서 오는 카리스

마다. 동티가 무엇인가? 사람 손과 너 무 물거나 한때 인기에 우쭐해서 너무 까불면 귀신이 노해서 벌을 준다는 옛 표현이다. 이 역시 요즘 세상에 무슨 '거지발싸개' 같은 소리나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씨 부패사건을 보고 안됐다고 해 차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럴까? 우물 물근처 얘기다. 알고 천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정도다. 또 있다. 북한 까부는 건 어떤가? 평양에서 아무리 왕왕대도 납한 국민들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 없다. 어째서 그럴

마가 그 생명이다. 그래서 문화자본주의 소울 마케팅이니 하며 그 신선함과 영성을 찬양하는 터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한국 텔레비전은 어떤가? 한마디로 똑같은 한 성형공장에서 한 날한시에 수술 끝내고 출시한 똑같은 성형제품들 나열한 가판대 꽂이다. 똑같은 쌍꺼풀에 똑같은 높인 코, 똑같은 깎은 턱, 똑같은 깎은 광대뼈에 약 발라서 부풀린 젖가슴, 만들어낸 둥근 엉덩이, 발광약 품 바른 허어연 허벅지에 똑같은 허리 비틀기, 똑같은 섹시 보이스, 똑같은 브랜드 미소, 구역질이 난다.

'빠꼼이' 국민들은 촛불을 켜 적까지 있는 짧은이들과 여성들이다. 아마도 곧 집단적 시청 보이콧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데지 인플루엔자에 한 술 더 떠 우물물에 독약을 푼 꼴이니 말이다.

시중엔 묘한 말이 돌고 있는 요즘이다. 뉴욕 맨해튼 최고 유행은 가름한 눈매에 가름한 목덜미의 타고난 동양 미인형이라는 것. 월가 전문가들의 한국 동경과 같은 흐름이다. 무엇을 보고 그들이 그러는 것인가? 샘풀을 계기로 한국의 김주아진 100m의 신이한 샘풀의 깊이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시안 네오르네상스다.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파탄 위기’의 지자체 재정 이대로 둘 건가

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은 고질적이다. 이는 인구 및 산업분포와 지리적 특성 등에 기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재정의 큰 틀을 정부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세원은 중앙정부가 차지하면서 지자체의 세원발굴을 억제하 통제하는 현재의 세제체계에서는 지방의 재정자립은 원원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운용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지자체 역시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미쳤다. 특히 광주 동구, 구례, 보성, 강진, 완도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궁핍한 지방재정으로 분권은 고사하고 자치행정도 어려울 판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는가.

## 산업용지 부족해 기업유치 못해서야

전남도가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지속적인 기업유치 노력 덕분에 전남지역 산업단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다른 자치체들은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전남 산업단지는 용지가 부족해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을 되돌려 보내야 할 혼란 것이다.

특히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은 사정이 심각하다. 입주 및 증설을 원하는 업체는 늘고 있지만 용지가 빠져 부족해 이들의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산단을 조성할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미온적인 입장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에 한해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급과잉은 문제될 게 없다.

기업유치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산업용지가 부족해 황급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患)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 無等 鼓

고원승이 진화론을 내세웠다는 게 요지다.

생체적인 공통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돼지는 인류에게 충분히 유익한 동물이다. 인류가 9천년 전부터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기 시작한 이후, 가죽은 방패, 뼈는 도구와 무기, 털은 솔을 만드는데 쓰였다. 최근에는 비단 소고기 대신 돼지 삼겹살이 각광을 받으면서 '금겹살' 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다. 돼지는 요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 멕시코발 돼지 인플루엔자(SI) 때문이다. 20세기 초 스페인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살인 독감'의 변종이라는

설도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크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세계 은행은 SI가 창궐하면 4조4천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사람의 유·불리에 따라 전당과 지옥을 오가는 돼지의 운명이 안타깝다.

김주정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헌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의료 칼럼



## 허정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환갑을 넘기신 분이 많지 않고 더더욱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40세를 미치지 못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 특히 선진 의학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전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로 인한 의료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한국인의 수명이 계속 연장돼 현재 남녀 평균 80세를 넘기고 있다.

현재 의학의 발달로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각종 암이 조기 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현재 60~7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 돌연사

##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비

의 주원인인 심·혈관질환 등도 예방적 및 적절한 조기치료로 인해 돌연사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도 의학의 발달과 환자들의 인식 변화로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어 수명 연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중 가장 큰 것이 장수하는 것이고 옛말에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났다'고 할 정도로 오래오래 살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고령화에 따른 많은 문제를 넘기고 있지만은 않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가장 합리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 우리는 뜰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고 국가적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리라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왔다. 많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

첫째로 건강한 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없다는데 문제다. 짚

은이들도 청년 백수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문제는 이율배반적이다.

둘째로 부부간에 환호 이혼 또는 사별로 노년을 홀로 쓸쓸히 지내는 물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 우려도 크다.

셋째로는 60~70대가 되면 각종 성인 병들을 위시한 각종 질환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들의 의료비 상승은 현재 기업수적으로 증가해 개인뿐 아니라 의료 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더욱이 노인 복지를 위한 각종 복지기금의

## 기고

## 조덕진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추억과 육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너무나 잘 알려진 TS앨리엇의 시 ‘황무지’의 일부다.

문화적 해석을 차치하고 이야기하자면 나는 이 잔인한 4월이 꼭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 같다라는 느낌이다. 그것은 아마도 얼마전에 만난 우리 청소년들의 눈망울이 잊히지 않아서일 터이다. 그

## 오월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소울을 있다.

내가 만난 그 아이의 눈망울은 유행이나 얼굴이나 시새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투명한 무채색의 눈빛이었다. 아이답지 않은 너도무 솜죽은, 순한 눈빛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훌륭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꿈을 키워내고 있었다. 대안학교나 겸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과 정을 훌륭히 해냈다.

그 청소년들 중 일부가 오는 5월 29~30일 펼쳐지는 ‘2009 광주청소년 음악페스티벌’에 주인공으로 나선다. 전국의 비슷한 열망과 꿈과 희망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광주에 모여 광주의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할 예정이다. 구경꾼이나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축제의 전면에 나서는 아이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뜨거운 마음의 박수를 제안하고 싶다.

하여 순한 양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지나친 욕심과 절제되지 않은, 엉클어진 시냅스의 눈길을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단 한 번만이라도,

5월이 다가오고 있다.

5월은 80년 민중항쟁의 소중한 부활

을

울립일

수

도

있

다

그

곳

에

그

무

우

리

다

그

곳

에

그

무

우

리

다

그

곳

에

그

무

우

리

다

그

곳

에

그

무

우

리

다

그

곳

에

그

무

우

리

다

그